

경남 진주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s of Seowon in Jinju, Gyeongsangnam-do

윤 상 기(Yun, Sang-Gi)**

◁ 목 차 ▷

- | | |
|------------------|-----------|
| 1. 서론 | 5. 판본의 성격 |
| 2. 진주의 사정 | 6. 결론 |
| 3. 진주의 서원에 대한 개관 | <참고문헌> |
| 4. 서원판본 | |

< 초 록 >

이 글은 1910년 당시의 경남 진주군에 소재했거나 소재한 적이 있었던 서원들에서 그때까지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해당되는 서원은 모두 13개이다. 이들 중 3개 서원에서 3종의 판본을 발행했고, 4종의 판본을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발행사실이 확실한 것은 大覺書院에서 발행한 「覺齋先生文集」(1844)과 鼎崗書院에서 발행한 鼎山志 와 「凌虛先生文集 이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大覺書院의 覺齋河先生文集, 松亭先生文集 및 覺齋先生文集」(1813序)과 臨川書院의 「浮查先生文集」이 있다. 이들 판본들에 대해서는 서지사항을 정밀기술하고 서원판본임을 밝히거나 발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판본의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밝혔다.

첫째, 조선시대 진주의 서원들에서는 集部의 別集類인 문집들을 주로 발행했다.

둘째,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7종의 판본은 모두 목판본이고, 근래로 오면서 점차 발행 종수가 늘어났다.

셋째,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7종의 판본이 모두 그 책을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원의 배향자와 직접으로 관련 있는 것들인데, 그 중 6종은 배향자가 저자이며, 1종은 배향자가 편찬자이다.

要語 : 진주, 서원판본, 大覺書院, 臨川書院, 鼎崗書院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008AA028)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skyoon@deu.ac.kr)

접수일: 2008년 9월 8일 최초심사일: 2008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23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ublications of seowon located in Jinju(진주), Gyeongsangnam-do(경상남도). In this study, surveyed are the publications either published or presumed to be published by seowons in Jinju-Gun before 1910.

Out of thirteen seowons, three published three books and possibly four more books. The former include *Gakjae-seonsaeng munjib*(1844)(『覺齋先生文集』(1844)) published by Daegak Seowon(大覺書院) and *Jeongsanji*(『鼎山志』) and *Neungheo-seonsaeng munjib*(『凌虛先生文集』) published by Jeonggang Seowon(鼎岡書院). And the books highly presumed to be published by these seowons include *Gakjae-ha-seonsaeng munjib*(『覺齋河先生文集』), *Songjeong-seonsaeng munjib*(『松亭先生文集』), and *Gakjae-seonsaeng munjib*(foreword in 1813)(『覺齋先生文集』(1813序)) related with Daegak Seowon(大覺書院) and *Busa-seonsaeng munjib*(『浮查先生文集』) related with Imcheon Seowon(臨川書院). For these books, bibliographical information has been described in detail, and it is presented that they were either published by seowons or so presumed.

Through the analysis on these publications, the following facts are found:

First, seowons in Jinju during the Joseon Dynasty mainly published collections of works(문집) categorized into the Subclass of Individual Collections(別集) under the Class of Collection of Works(集部).

Second, all of the above mentioned seven books were published from woodblocks(목판본). As it became more recently, the publishing became more and more frequent.

Third, all of these seven book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 to whom those seowons were dedicated. Six were written and one was compiled by those people who were worshipped at these seowons.

Keywords : Jinju, Publications of Seowon, Daegak Seowon, Imcheon Seowon, Jeonggang Seowon

1. 서론

조선시대에 사립교육기관의 큰 축을 이루었던 서원은 조선조 중엽부터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유생들이 모여 강당에서 학문하는 강학의 기능과 祠宇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제향의 기능을 갖춘 곳이다. 그 외에도 도서관적 기능과 향촌자치 운영기구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 아무튼 서원은 道學을 이상으로 삼던 사대부 사림 세력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성리학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산물이다.¹⁾

서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적들을 발행하기도 했었는데, 필자는 이러한 서원판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조사, 연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발표한 것은 경주 玉山書院,²⁾ 산청 德川書院³⁾ 및 밀양 禮林書院⁴⁾의 개별 서원판본들과 경남 함양의 서원판본⁵⁾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서원판본에 대한 일련의 연구의 하나로 경남 진주의 서원판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당시 진주군에 소재했었거나 소재한 적이 있는 서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발행 시기를 1910년으로 제한한 것은 조선조 말기에 흥선대원군에 의한 대규모의 서원·사우의 철폐가 있고 난 후, 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복설 또는 신설된 서원들은 근대화와 서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서원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시기에 발행된 서적 역시 서원 본래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판본의 발행처에 대한

1) 안장현 사진 ; 이상해 글, 『書院』 (서울: 열화당, 1998), 7.

2) 윤상기, “慶州 玉山書院版本에 관한 연구,” (東義大學校) 東義論集 第38輯, 人文·社會科學篇(2003. 2), 77-95.

3)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版本考,” (東義大學校) 『東義論集』 第40輯, 人文·社會科學篇 (I) (2004. 2), 423-443.

4)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인문학과 문화, (2004. 2)(문화콘텐츠연구-9), 367-402.

5)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237-271.

한계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白雲洞書院⁶⁾에서 비롯한 조선의 서원은 조선후기에 와서는 인물위주로 서원이濫設되어 祠宇와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또한 창설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원의 기능과 명칭 상의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⁷⁾ 본 연구는 서원판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술국치가 있는 1910년 이전에 설립된 서원을 대상으로 하되, 창설 때부터 1910년까지의 기간 내에 서원으로 불렸던 시기에 발행된 판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분명한 발행의 기록은 없지만 장판기나 기타 기록들의 분석을 통해 1910년 이전에 서원에서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판본들도 참고로 함께 언급하겠다. 현재 慶尙南道 山淸郡 矢川面 院里 193-5번지에 있는 德川書院과 慶尙南道 河東郡 玉宗面 正水里 176번지에 있는 玉山書院은 조선조 대부분의 기록에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光武 10(1906)년에 각각 산청군과 하동군으로 편입되었기에 제외하였다. 두 서원은 모두 서적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 중 德川書院의 판본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혔듯이 필자가 이미 2004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2. 진주의 사정

진주는 嶺南右道の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문화적 영향권이 매우 넓어 경북의 안동과 더불어 영남의 쌍벽을 이루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제는 반이 영남에 있고 영남 인물의 반은 晉陽에 있다”⁸⁾는 말이 人口에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 전기에 一蠹 鄭汝昌(1450~1504)과 南冥 曹植(1501~1572)을 배출하여 儒鄉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다.⁹⁾ 그리고 曹植에게서 비롯된 南冥學派의 활동 중심지이기도 하다.

6) 현재의 紹修書院

7)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239-240.

8) ‘國初人才輩出科宦烜赫 … 東國人才半在嶺南 嶺南人才半在晉陽’ 朴士淳, <晉陽蓮桂案跋>, 許溥 等編, 晉陽蓮桂案 (1991) (박병련 외, 南冥學派와 嶺南右道の 士林 (서울: 예문서원, 2004), 38 주)7에서 재인용.)

9) 박병련 외, 『南冥學派와 嶺南右道の 士林』, 38-39.

현재의 진주시는 경상남도에 속해 있으며, 동쪽으로 마산시와 함안군과 접해있고, 서쪽으로는 하동군, 남쪽으로는 사천시와 고성군, 북쪽으로는 산청군, 의령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소백산맥이 남쪽으로 뻗어내려 있으며, 경남의 동맥인 남강이 거창군 덕유산과 지리산으로부터 발원하여 서부경남의 산간지대의 低谷部를 따라 동서로 흐르고 있다. 면적은 712.63km²이고, 동서 간 거리는 43.7km, 남북 간 거리는 33.2km이다.¹⁰⁾

胙州 지역의 명칭은 그동안 靑州, 康州, 晉陽 등의 지역 명으로도 불리어져 왔는데, 그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주 지역에서는 그동안의 각종 선사시대 유물들의 발굴로 보아 기원전 약 2000경 이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삼한시대에는 弁韓의 12국 중의 하나인 古淳是國으로, 가야시대에는 駕洛國의 伽倻聯盟 중 古寧伽倻의 古都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국시대 동안 神文王(新羅) 5(685)년에 9州를 정비하면서 靑州가 되었는데, 景德王(新羅) 16(757)년에는 康州로, 昭聖王(新羅) 1(799)년에는 다시 靑州로, 憲德王(新羅) 17(825)년에는 다시 康州로 개칭을 반복하였다.

고려시대에는 太祖(高麗) 23(940)년에 晉州로 개칭되었다가, 成宗(高麗) 2(983)년에 신라 때 이래로 襲用해 오던 州制度를 牧制度로 개혁하면서 晉州牧이 되었다. 成宗(高麗) 14(995)년에는 牧制度를 州制度로 환원하면서 다시 晉州가 되었으며, 顯宗(高麗) 9(1018)년에는 또 다시 牧制度로 바꾸면서 晉州牧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太祖 원(1392)년에는 晉陽이라 하고 그의 顯妃의 內鄉이라 하여 牧을 높여서 晉陽大都護府를 두었다. 太宗 2(1402)년에는 다시 晉州라 하고 晉陽大都護府를 晉州牧으로 고쳤다. 高宗 32(1895)년에는 8道制를 폐지하고 전국을 23府로 나누어 관찰사를 두었는데 이때 진주에는 晉州府가 設營되고 晉州牧은 晉州郡으로 개칭되어 晉州府 晉州郡이 되었다. 建陽 원(1896)년에 다시 23府制를 폐지하고 전국을 13道로 나눌 때 晉州는 慶尙南道에 소속되고 도청 소재지가 되어 慶尙南道 晉州郡이 되었다.

10) '제49회 진주 통계연보,' <<http://stat.nongae.net/html/index.asp>> [2008. 8. 22. 검색].

일제강점시대에는 1914년에 종래의 晉州郡 소관인 50面 298里洞이 19面 148里洞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때 晉州는 晉州郡 晉州面이 되었다. 1931년 4월 1일에는 府令 제103호¹¹⁾에 의하여 晉州邑으로 승격되어 晉州郡 晉州邑이 되었다. 1939년 10월 1일에는 府令 제168호¹²⁾에 의하여 晉州邑이 晉州府로 승격되고 晉州郡은 晉陽郡으로 改稱되어 晉州府 晉陽郡이 되었다.

대한민국시대에는 1949년 8월 15일에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晉州府가 晉州市로 개칭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法律 제4774호인 ‘京畿道南楊州市 등 33個 都農複合形態의 市設置 등에 관한 法律’¹³⁾에 따라 晉州市와 晉陽郡을 각각 폐지하고 통합 晉州市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⁴⁾

현재의 晉州市는 문산읍의 1읍과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명석면, 대평면 및 수곡면면의 15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중앙동, 봉안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관문동 및 가호동의 21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현재 총인구수는 331,897명이다.¹⁵⁾

조선조 진주에 거주했던 氏族은 晉州姜氏, 晉州康氏, 曲阜孔氏, 玄風郭氏, 綾城具氏, 固城金氏, 金山金氏, 金海金氏, 禮州金氏, 蔚山金氏, 咸昌金氏, 花開金氏, 宜寧南氏, 岳陽陶氏, 南平牟氏, 南平文氏, 班城文氏, 松慈文氏, 密陽朴氏, 薩川朴氏, 岳陽朴氏, 鐵城朴氏, 泰安朴氏, 咸陽朴氏, 水原白氏, 草溪卞氏, 班城成氏, 昌寧成氏, 晉州蘇氏, 密陽孫氏, 岳陽孫氏, 高靈申氏, 居昌愼氏, 順興安氏, 南原梁氏, 密陽楊氏, 岳陽吳氏, 班城玉氏, 丹陽禹氏, 文化柳氏, 靈光柳氏, 晉州柳氏, 坡平尹氏, 固城李氏, 碧珍李氏, 泗川李氏, 星山李氏, 驪陽李氏, 驪興李氏, 長水李氏, 載寧李氏, 全義李氏, 全州李氏, 鐵城李氏, 咸安李氏, 岳陽任氏, 永善

11) 1930. 12. 29. 공포.

12) 1939. 9. 30. 공포.

13) 1994. 8. 3. 공포.

14) ‘제49회 진주 통계연보,’ <<http://stat.nongae.net/html/index.asp>> [2008. 8. 22. 검색].

15) ‘진주가이드,’ <http://www.jinju.go.kr/03jinju/05_01.php> [2008. 8. 24. 검색].

任氏, 晉州任氏, 永善林氏, 丹陽張氏, 班城全氏, 全州全氏, 慶州鄭氏, 延日鄭氏, 迎日鄭氏, 晉州鄭氏, 海州鄭氏, 昌寧曹氏, 林川趙氏, 咸安趙氏, 班城周氏, 驪陽陳氏, 朔寧崔氏, 全州崔氏, 和順崔氏, 晉州河氏, 永善韓氏, 清州韓氏, 金海許氏, 班城玄氏, 班城邢氏, 南陽洪氏 및 昌原黃氏의 83貫44姓으로 조사되었다.¹⁶⁾ 이들 在地氏族들 중 名門士族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은 東湖 姜行의 晉州姜氏, 白巖 金大鳴의 蔚山金氏, 南平文氏, 凌虛 朴敏의 泰安朴氏, 浮查 成汝信의 昌寧成氏, 松村 孫錫胤의 密陽孫氏, 潮溪 柳宗智의 文化柳氏, 陶丘 李濟臣과 雲塘 李琰의 固城李氏, 李喜生의 碧珍李氏, 杏窩 李重榮의 載寧李氏, 新菴 李俊民의 全義李氏, 咸安李氏, 三溪 鄭密의 晉州鄭氏, 農圃 鄭文孚의 海州鄭氏, 昌寧曹氏, 知足堂 趙之瑞의 林川趙氏, 大笑軒 趙宗道の 咸安趙氏, 栢谷 陳克敬과 月窩 陳克元의 驪陽陳氏, 全州崔氏, 守愚(堂) 崔永慶 형제의 和順崔氏, 喚醒齋 河洛, 謙齋 河弘度 및 滄洲 河愷의 晉州河氏, 獻納 韓汝哲의 清州韓氏 및 金海許氏의 23貫16姓 정도를 들 수 있다.¹⁷⁾ 그리고 이들 名門士族들 중 이 지역 서원에 배향자가 있는 氏族은 晉州姜氏(臨川書院, 鼎崗書院), 蔚山金氏(大覺書院), 泰安朴氏(鼎崗書院), 昌寧成氏(臨川書院), 密陽孫氏(大覺書院), 文化柳氏(大覺書院), 載寧李氏(大覺書院), 全義李氏(臨川書院), 晉州鄭氏(道東書院, 鼎崗書院, 清溪書院, 平川書院), 林川趙氏(新塘書院), 咸安趙氏(慶林書院), 驪陽陳氏(鼎崗書院), 全州崔氏(仁溪書院), 晉州河氏(大覺書院, 道東書院, 雲岡書院, 臨川書院, 鼎崗書院, 宗川書院) 및 清州韓氏(臨川書院)의 15貫13姓이다.

16) ①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②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二 慶尙道 編②,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③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三 慶尙道 編③,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④ 「朝鮮의 姓」 複製本 (서울: 民俗苑, 1989).
 ⑤ 이수진,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탐구 25).
 ⑥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一潮閣, 1995), 4-7, <表 1-1>.
 ⑦ 박병련 외, 「南冥學派와 嶺南右道の 士林」 등.
 17)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表 1-1>을 기본으로 하고, 박병련 외, 「南冥學派와 嶺南右道の 士林」 42-61과 이상필, 「진주 지역 문집의 현황과 그 의미」 (경상대학교 경남 문화연구소) 「慶南文化研究」 第24號(2003), 3-12를 이용하여 보충하였다.

3. 진주의 서원에 대한 개관

1910년까지 당시의 晉州郡 영내에 한 때라도 존속했던 서원은 모두 13개로 <표 1>과 같다.

<표 1> 진주군의 서원들

서원명	창건년도*/ 사액년도	배향자	비 고
慶林書院	憲宗 4(1838)	金誠一 趙宗道	高宗 5(1868)년 훼손
廣齊書院	肅宗 43(1717)	洪毅 洪灌	暮遠齋로 창건 高宗 28(1891)년 중건
大覺書院	光海君 2(1610)	河沆 孫天祐 金大鳴 河應圖 李濤 柳宗智 河受一	高宗 8(1871)년 훼손
道東書院	憲宗 4(1838)	鄭以吾 鄭萃 皇甫仁 金宗瑞 金文起 河洛	高宗 5(1868)년 훼손
新塘書院	肅宗 39(1713)/ 肅宗 44(1718)	趙之瑞	高宗 5(1868)년 훼손
龍崗書院	光武 6(1902)	金宇顯	
雲岡書院	창건년도미상	河拱辰 河潤	高宗 5(1868)년 훼손
仁溪書院	肅宗 36(1710)	崔得淨 崔琦弼 崔濯 崔聖運	高宗 5(1868)년 훼손, 서당으로 개편 一名: 仁川書院
臨川書院	肅宗 28(1702)	李俊民 姜應台 成汝信 河경(卍+登) 韓夢參	高宗 5(1868)년 훼손
鼎崗書院	肅宗 20(1694)	鄭溫 姜叔卿 河潤 俞伯溫 李濟臣 李琰 河天澍 陳克敬 朴敏	高宗 5(1868)년 훼손
宗川書院	肅宗 3(1677)	河弘度 河潛 河演	高宗 5(1868)년 훼손
清溪書院	憲宗 4(1838)	鄭臣烈 鄭天益	高宗 5(1868)년 훼손
平川書院	憲宗 7(1841)	鄭以吾 鄭誠謹 鄭百亨 朱大清 朱夢龍	高宗 5(1868)년 훼손

* 창건년도는 서원으로 창건한 때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사우로 창건하여 서원으로 승격되었을 경우에는 사우의 창건년도를 표시하였다.

이들 서원들을 창건시기별로 보면 17C에 3곳, 18C에 4곳, 19C에 4곳, 20C에

1곳이 세워졌으며, 1곳은 창건 년도미상이다. 사액을 받은 서원은 新塘書院 1곳뿐이며, 나머지 12개 서원은 미사액 서원들이다.

진주의 이들 13개 서원들 중 1910년 이전에 서적을 한 번이라도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곳은 大覺書院, 臨川書院 및 鼎崗書院의 3개 서원뿐이다.

4. 서원판본

1910년까지 서적을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원들과 그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서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판본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목록을 기술한 후 간략한 해제와 더불어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발행사실이 확실한 판본들을 먼저 설명하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은 그 뒤에 따로 언급하겠다.

4.1 大覺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晉州市 水谷面 士谷里 518

창 건: 光海君 2(1610)년

배향자: 河沆(1538~1590) · 孫天祐(1533~1594) · 金大鳴(1536~1593) ·
河應圖(1540~1610) · 李澣(1541~1613) · 柳宗智(1546~1589) ·
河受一(1553~1612)

宣祖 39(1606)년에 지역 사람이 覺齋 河沆을 추모하기 위하여 祠宇(大覺祠)를 건립할 것을 논의하여, 그 해 7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光海君 2(1610)년 9월 5일에 완성되었다.¹⁸⁾ 그 후 조선 중기의 인물들로서 南溟 曹植(1501~1572)

18) 河沆 撰; 河以泰 等編, 『覺齋先生文集』 3卷1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純祖 13(1813)序), 卷下, <祠宇奉安序>, 張26-27 참조.

의 문인들인 撫松 孫天祐, 白巖 金大鳴, 寧無成 河應圖, 茅村 李澍, 潮溪 柳宗智 및 松亭 河受一 등을 추배하였다.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高宗 8(1871)년에 훼손되었는데, 그 유허가 晉州市 水谷面 土谷里 大覺마을¹⁹⁾에 남아 있다. 현재는 1947년에 지방유림에 의하여 그 인근에 복원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²⁰⁾ 대각서원칠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4년 3월 18일에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344호로 지정되었다.

이 서원에서 발행했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판본은 아래의 1종이다.

覺齋先生文集 / 河沆(朝鮮) 著 ; 河晉賢(朝鮮) 編. -- 木板本(重刊修補).
-- [晉州] : [大覺書院], [憲宗 10(1844)年]
3卷1冊 : 挿圖, 四周單邊 半郭 20.3 × 16.2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2
葉花紋魚尾

版心題: 覺齋集

手書刻序: 上之十三年癸酉(1813)二月下澣通訓大夫前行司憲府掌令晉陽鄭宗魯撰

跋: 上之十年甲辰(1844)端陽月旁後孫[河]晉賢謹跋

河沆의 시문집으로 覺齋는 河沆의 號들²¹⁾ 중 하나다. 저자의 旁後孫인 容窩 河晉賢(1776~1846)이 편했으며, 뒤에서 다를 重刊本の 修補本이다.

이 판본의 판각과 장관에 관한 기록은 다음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1940년에 발행한 三刊本에는 12세손 河壽鎭(?~?)이 1939년에 작성한 발문이

19) 일명 '서원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인명검색하기,' <<http://www.shinjongwoo.co.kr/name/ha/haa/wlsw/wls46.htm>> [2008. 9. 3. 검색].)

20) 吳二煥, "『南冥集』 釐正本의 成立," (南冥學研究院)『南冥學研究論叢』 第3輯(1995. 2), 417, 주)37.

21) 覺齋, 來復齋

있다. 이 발문 중에 ‘純祖 甲辰年에 大覺書院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여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²²⁾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 大覺書院은 이곳뿐이며, 저자인 河沆은 이 서원의 배향자이다. 그런데 純祖年間에는 甲辰年이 없고 그 다음 왕인 憲宗年間에 이르러서야 甲辰年이 있다. 河壽鎭이 ‘純祖甲辰’으로 표현한 것이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판목을 새긴 해는 憲宗 10년 甲辰年인 1844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憲宗 10(1844)년은 河晉賢이 이 판본의 권말에 수록한 발문을 지은 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憲宗 10(1844)년에 大覺書院에서 발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판본에 있는 河晉賢의 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발행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돌아가신 나의 아버님 涵淸公이 깊이 추모하는 마음을 드러내셔서 드디어 간행할 계획을 세우셨다. 知舊의 집을 통해 재물을 모으고 이름난 선비에게 글을 청하였다. 드디어 일을 시작하여 本院에 책판을 갈무리하였다.

벽 틈으로 비가 새어서 간혹 썩거나 훼손된 것이 있었다. 게다가 문집이 간행된 뒤에 思湖의 輓詞와 祭文이 뒤늦게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不肖한 내가 서원의 유생들과 의논하여 판이 상한 것은 고치고 글이 남아 있는 것은 보충하였다. 이 또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뜻하신 일이었다.²³⁾

이 내용은 河晉賢의 아버지 涵淸軒 河以泰(1751~1830) 등²⁴⁾이 重刊本을 발행하고 책판을 大覺書院에 보관했으며, 河晉賢이 그것을 修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修補는 훼손된 책판의 보수와 뒤늦게 발견된 思湖 吳長(1565~1616)의 글 등을 보충한 것을 말한다. 重刊本과 그것의 修補本을 대조해본 결과, 卷上의 張13, 14, 18, 19, 卷中의 張3, 4의 6張은 改替한 것으로 그 중 卷上의 張19에서

22) ‘純祖甲辰 鋳梓于大覺書院 已公行於世…’ 河沆 撰; 河晉賢 編, 『覺齋先生文集』 2卷1冊, 石版本(京城: [發行處不明], 1940), 卷末.

23) ‘先君子涵淸公 深追羹牆之慕 遂謀剗劓之役 鳩財於知舊之家 請文於秉筆之士 竟以就緒 藏板于本院矣 雨漏壁隙 間有朽毀 且思湖輓祭之文 晚出於既刊之後 故不肖詢于院儒 板之傷者改之 文之遺者補之 亦先君子志事也’ 河沆 撰; 河晉賢 編, 『覺齋先生文集』 3卷1冊, 木板本([晉州]: [大覺書院], 純祖 13(1844)年), 卷下, 張33左.

24) 발행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뒤의 重刊本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慰人眼昏>를 빼고 <挽林葛川[薰]>를 대신 넣은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卷下의 張28-33 6張은 추가된 것으로, 張28-29에 補遺로 吳長(1565~1616)의 祭文과 輓詞, 張29에 篁巖 朴齊仁의 <祠宇告由文>, 張30에 謙齋 河弘度(1593~1666)의 <南冥²⁵⁾先生師友錄跋>과 雪壑 李大期(1551~1628)의 <諭晉陽士友文>, 張30-31에 東溪 權濤(1575~1644)의 <答德川院儒文子韶書>, 張31에 無悶堂 朴綱(1583~1640)의 <答權東溪書>, 張31-33에 河晉賢의 跋文을 각각 追刻하였다. 따라서 총 12張이 새로 새긴 판이었다. 그러므로 이 판본은 뒤에서 다룰 重刊本の 修補本으로 憲宗 10(1844)년에 河晉賢이 대각서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집의 책판은 총 82매였으나 현재 그 중 30매만 慶尙南道 晉州市 水谷面 土谷里 567번지 晉陽河氏 松亭宗宅에 보관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 27일 「松亭先生文集」, 「白巖逸稿」 및 「大覺書院七先生實記」 책판과 더불어 총 112매가 ‘晉州土谷里 晉陽河氏松亭宗宅所藏冊板’이란 이름으로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 327호로 등록되었다. 이들 책판들은 원래 河拱辰(?~1011)의 사당인 擎節祠²⁶⁾ 아래에 있는 落水庵의 文會閣²⁷⁾과 大覺書院 등에서 보존해 오던 것을 현재는 松亭宗宅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大覺書院의 소재지는 太宗 2(1402)년에 晉陽大都護府에서 晉州牧으로 바뀐 후 계속 晉州로 불려 왔기 때문에 발행지는 晉州가 되겠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古3648-88-55), 경상대학교(D3B하91ㄱ(오림), (D3B하91ㄱ(아천))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편, 책판목록의 장판기록 등을 통해 서원 발행 가능성이 추정되는 판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3종이 있다.

25) 조식의 호들 중 남명은 ‘南冥’과 ‘南溟’ 둘 다 쓰였다.

26) 慶尙南道 晉州市 水谷面 土谷리에 있다.

27) ‘文會閣’이란 현판이 이 책판들과 함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판들을 갈무리한 藏板閣의 이름이 文會閣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유산정보,’ <http://www.cha.go.kr/korea/heritage/sub_heritage.jsp?mc=KS_01_00> [2008. 9. 5. 검색].)

覺齋河先生文集 / 河沆(朝鮮) 著. --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光海君 2(1610)年跋]

3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3.2 × 18.8 cm, 有界, 11行21字 注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覺齋先生文集

跋: 萬曆三十八年庚戌(1610)…河受一…

河沆의 시문집으로 初刊本 혹은 初刊本の 補板本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補板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卷上의 마지막 張인 張23이다. 補板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이 張에 補遺로 4首의 詩가 실려 있는데, 이 張만 字體가 다른 곳과 다르며 또한 卷中과 卷下의 卷末題가 각각 ‘覺齋河先生文集卷中’과 ‘覺齋河先生文集卷下’인 반면 이 張에 있는 卷上의 卷末題는 ‘覺齋河先生文集卷之一’로 되어 있어 표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張23의 補遺가 없는 판본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아 실제로 인출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판각이 다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하여 補遺에 실린 그 4首의 詩가 발견되어 補板하고 처음으로 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능성은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판본의 발행년이 大覺書院의 창건시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책판목록에서는 「林園十六志」,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集類條와²⁸⁾ 「鏤板考」, 集部 上의 別集類 上에²⁹⁾ 晉州 大覺書院에 장관되어 있는 것으로 所載되어 있는 ‘覺齋集 三卷’이 이 판본의 책판으로 추정된다. 「鏤板考」는 正祖 20(1796)년경에 편찬되었고 「林園十六志」의 京外鏤板은 「鏤板考」의 草稿로 생각되는 책판목록이므로,³⁰⁾ 뒤에서 거론할 純祖 13(1813)년의 서문이 있는 重刊

28) 徐有渠 編, 「林園十六志」 卷105,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888.

29) 徐有渠 著; 洪命憲 校訂, 「鏤板考」 7卷 1冊, 鉛印本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 16(1941)),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下), 1109.

本の 책판이 수록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발행년은 권말에 있는 河受一이 지은 발문의 작성년대로 보아 光海君 2(161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光海君 2(1610)년은 河沆이 죽은 지 20년 되는 해로서 大覺書院이 창건된 해이다. 따라서 初刊本 혹은 初刊本の 補板本으로 추정되는 이 판본은 아마도 河沆을 위해 창건한 大覺書院의 창건에 맞추어 발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판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고811.081하항1)에서 소장하고 있다.

松亭先生文集 / 河受一(朝鮮) 著 ; 河正中(朝鮮) 編. -- 木板本(初刊).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正祖 12(1788)年]
6卷, 附錄, 共3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0.2 × 16.5 cm, 有界, 10行 22字,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松亭文集

手書刻序: 上之十二年戊申(1788)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平康蔡濟恭謹書

序: …游齋李玄錫…

卷末: 書松亭歲課後…戊戌(1598)九月下澣鑑谷李汝齋書

河受一의 시문집으로 松亭은 河受一의 號다.

「松亭先生文集」은 두 차례 발행되었는데 이 판본은 그 중 初刊本이고 重刊本³¹⁾은 1939년에 발행되었다. 권두에 있는 樊巖 蔡濟恭(1720~1799)의 서문에 의하면 6세손인 河正中(?~?)이 편한 것으로 생각된다.³²⁾

30) “解題,”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補遺·索引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212.

31) 國立中央圖書館藏(古3648-88-8)

32) ‘公之六世孫正中 發巾衍藏 將謀剗刪…’ 河受一 著 ; 河正中 編, 松亭先生文集』 6卷3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正祖 12(1788)]), <序>[蔡濟恭], 張3.

河受一은 曹植의 高弟인 河沆의 從姪이면서 그의 門人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학문을 河弘度에게 이어줌으로써, 진주 지역에서 남명학파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 판본은 6卷과 附錄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서목록들에서 5卷과 附錄으로 잘못 표시하고 있다. 卷5와 卷6의 版心題의 卷次表示가 모두 卷5로 되어 있으며 張次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그러나 張29에 卷6의 卷首題名이 있어서 張29부터 張40까지는 실제로는 卷6에 해당하므로 5卷이 아니라 6卷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서원 발행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冊板目錄과 邑誌에서 장관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冊板目錄에서는 『林園十六志』,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集類條外』³³⁾ 『鏤板考』, 『集部』 上의 『別集類』 上에³⁴⁾ 『晉州 大覺書院』에 장관되어 있는 것으로 所載되어 있는 책판이 이 판본의 책판으로 추정된다. 邑誌에서는 純祖 32(1832)년경에 편찬된 『慶尙道邑誌』의 <晉州牧邑誌>, <冊板> 條에 ‘在大覺書院’으로 표시된 ‘松亭集’이 이 판본의 책판으로 추정된다.³⁵⁾ 따라서 이 판본은 大覺書院에서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발행년은 卷頭에 正祖 12(1788)년에 蔡濟恭이 지은 序文이 있고, 1939년에 발행된 重刊本의 <年譜>에도 “正祖 12(1788)년에 文集이 이루어졌다”³⁶⁾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正祖 12(1788)년으로 추정된다.

이 문집의 책판은 총 194매였으나 현재 그 중 62매만 晉陽河氏 松亭宗宅에 보관되어 있으며, 앞서 밝혔듯이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327호로 등록되어 있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022)과 경상대학교(D3B하57스(오림))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33) 徐有渠 編, 『林園十六志』 卷105,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下), 891.

34) 徐有渠 著; 洪命憲 校訂, 『鏤板考』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下), 1122.

35)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187.

36) 『十二年戊申 文集成』 河受一 著; 河宗根 編, 『松亭先生文集』 5卷3冊, 續集3卷1冊, 共4冊, 石版本(京城: [發行處不明], 1939), 卷3, <年譜>, 張23.

覺齋先生文集 / 河沆(朝鮮) 著 ; 河以泰(朝鮮) 等編. -- 木板本(重刊).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純祖 13(1813)年序]
3卷1冊 : 挿圖, 四周單邊 半郭 20.4 × 16.4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2
葉花紋魚尾

版心題: 覺齋集

手書刻序: 上之十三年癸酉(1813)二月下澣通訓大夫前行司憲府掌令晉陽鄭
宗魯撰

河沆의 시문집으로 重刊本이다. 이 판본을 初刊本으로 판단한 이도 있으나,³⁷⁾
앞의 「覺齋河先生文集」이나 「林園十六志」의 京外鏤板이나 「鏤板考」와 같은
冊板目錄을 간과한데서 온 오류로 생각된다.

이 판본의 卷上에는 詩와 賦, 卷中에는 書, 序, 跋, 箴, 銘, 傳, 祭文 등이 수록되
어 있으며, 卷下는 附錄으로 世系, 行狀, 行錄略, 遺事, 晉陽鄉賢錄, 祭文, 輓詞,
上樑文, 奉安文, 常享文, 祠宇奉安序 등이 있다. 附錄을 빼면 河沆의 詩文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앞에서 밝혔듯이 重刊本 修補本의 권말에 있는 河晉賢의 跋文에는 이 판본의
발행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涵淸公이 깊이 추모하는 마음을 드러내셔서 드디어
간행할 계획을 세우셨다. 知舊의 집을 통해 재물을 모으고 이름난 선비에게
글을 청하였다. 드디어 일을 시작하여 本院에 책판을 갈무리하였다.³⁸⁾

또 純祖 13(1813)년에 立齋 鄭宗魯(1738~1816)가 쓴 서문에는 “선생의 후손
인 河景賢이 이 책을 나에게 가져왔다”³⁹⁾는 내용도 있다. 涵淸公은 河以泰를

37) 河沆 著, 『覺齋集』 민족문화추진회 편,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第48輯 (서울: 민족문
화추진회, 1988), 490, <凡例>.

38) ‘先君子涵淸公 深追羹墻之慕 遂謀剗劓之役 鳩財於知舊之家 請文於秉筆之士 竟以就緒
藏板于本院矣’ 河沆 撰 ; 河晉賢 編, 『覺齋先生文集』(1844), 卷下, 張33.

말하며 그의 호가 涵淸軒 혹은 涵窩이다. 그리고 河以泰의 長子가 河晉賢이고, 次子가 顧軒 河景賢(1779~1833)이다. 이들 기록들로 추정해보면, 이 판본의 발행은 우선은 河以泰가 주도하고 아들들이 협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大覺書院이 발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혹은 발행 후에 서원에 장판만 하였는지는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고전번역원의 『覺齋集』 해제에서는 이 판본을 大覺書院에서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⁴⁰⁾ 어쨌든 서원 발행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에서 다룬다.

純祖 32(1832)년경에 편찬된 『慶尙道邑誌』의 <晉州牧邑誌>, <冊板> 條에 ‘在大覺書院’으로 표시된 ‘覺齋集’이 이 판본의 책판으로 추정된다.⁴¹⁾

발행년은 권두에 있는 鄭宗魯가 쓴 서문의 작성년대로 보아 純祖 13(1813)년경으로 추정된다.

판본은 규장각(奎12304)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1988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第48輯으로 영인하였다.⁴²⁾

4.2 臨川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晉州市 琴山面 加芳里 冠坊마을 중앙

창 건: 肅宗 28(1702)년

배향자: 李俊民(1524~1590) · 姜應台(1493~1552) · 成汝信(1546~1632) · 河愷(1563~1624) · 韓夢參(1589~1662)

肅宗 28(1702)년에 明宗 · 宣祖朝의 문신인 新菴 李俊民, 中宗~明宗朝의 문신인 誠齋 姜應台, 光海君朝의 문신인 浮查 成汝信, 宣祖朝의 문신인 滄州 河愷

39) ‘先生之傍裔景賢 奉此卷乎余’ 河沆 撰; 河晉賢 編, 『覺齋先生文集 (1844), 卷上, <覺齋河先生文集序>, 張7左.

40)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minchu.or.kr/MAN/index.jsp>> [2008. 8. 27. 검색].

41)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187.

42) 河沆 著, 『覺齋集』 민족문화추진회 편,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第48輯, 489-530.

및 조선 중기의 학자인 釣隱 韓夢參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河愷은 姜應台의 손녀사위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高宗 6(1869)년에 훼손되었다가 1945년에 復建하였다.

발행 사실이 분명한 판본은 없고, 책판목록에 장판기록이 있는 판본이 1종 있다.

浮查先生文集 / 成汝信(朝鮮) 著 ; 成東益(朝鮮) 等編. -- 木板本(初刊).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正祖 9(1785)年序]

8卷4冊 : 世系圖, 年譜, 四周雙邊 半郭 22.0 × 16.9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浮查集

手書刻序: 時上之九年乙巳(1785)五月甲子後學漢山安鼎福序

成汝信의 詩文集으로 浮查는 成汝信의 호들⁴³⁾ 중 하나다.

이 책은 저자의 次子인 慕省齋 成鏞(1576~1628)의 曾孫인 成處會(?~?)가 遺稿를 수습하고, 成處會의 아들인 成大勤(?~?)이 문체별로 編定하고 <年譜>를 작성해 붙임으로써 문집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저자의 外孫婿인 暘谷 安彰漢(?~?)의 아들 安時進(1622~?)이 저자의 문인으로서 肅宗 13(1687)년경 <言行錄>을 저술하여 成處會에게 보내 부록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문집 발행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正祖 9(1785)년에 이르러 成大勤의 族姪인 成東益(?~?)⁴⁴⁾과 族孫 成師濂(?~?)⁴⁵⁾이 安時進의 族曾孫인 冷窩 安景漸(1722~1790)에게 찾아가 <言行錄>의 교정을 부탁하는 한편, 安景漸의 族人으로 당대 近畿 南人系의 대학자였던 橡山 安鼎福(1712~1791)에게 시문집의 교정을 청하고 序文·行狀·墓誌銘 등을 받았다.⁴⁶⁾ 이렇게 해서 編定된 원고를 그 해 진주

43) 浮查, 浮查野老, 桴槎

44) 저자의 6世孫으로 成鏞의 5世孫이 된다.

45) 저자의 7世孫으로 成鏞의 6世孫이 된다.

에서 발행한 듯하다.⁴⁷⁾

구체적인 서원 발행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책판목록과 읍지의 장관기록들을 통해 서원 발행 가능성은 찾아볼 수 있다. 「林園十六志」,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集類條외⁴⁸⁾ 鏤板考, <集部 上>의 <別集類 上>에⁴⁹⁾ ‘晉州 臨川書院 藏’으로 所載되어 있는 ‘浮查集 八卷’이 이 판본의 책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純祖 32(1832)년경에 편찬된 「慶尙道邑誌」의 <晉州牧邑誌>, <冊板> 條에 ‘在 臨川書院’으로 표시된 ‘浮查集’도 이 판본의 책판으로 추정된다.⁵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의 편집과정에 臨川書院이 개입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책판이 서원에 장관되어 있고 저자인 成汝信이 臨川書院의 배향자들 중 한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臨川書院에서 발행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판본은 昌寧成氏門中에 완질이 있으며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는 그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고서(I) 811.98 성여신 부 -1-3)에서는 卷 1-4, 7-8의 6卷3冊만 소장하고 있으며 高麗大學校 晚松文庫(D1-A1890)에도 零本 2卷1冊⁵¹⁾이 있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91년에 영인한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第56輯에는 연세대학교본이 卷5-6이 결본된 채로 영인되어 있다.

4.3 鼎岡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晉州市 文山邑 玉山里 鼎洞

46) ‘先生耳孫東益師濂 掇拾於斷爛之中 爲若干卷 將欲鋟梓 奉遺稿馳書幾千里 而請校於不佞 且請卷首之文 不佞嘗於東儒事實及德川師友錄中 略知先生言行 今何幸得觀全集之爲快 不以不文辭 拜受而讀 校訛謬 正篇次 謹序而歸之’ 成汝信 著; 成東益 等編, 浮查先生文集, 8卷4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正祖 9(1785)年]), <序>.

47) 崔錫起, “「浮查集」 解題,” 『南冥學研究』 第10輯(2001. 2), 416.

48) 徐有渠 編, 「林園十六志」 卷105,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下), 887.

49) 徐有渠 著; 洪命憲 校訂, 『鏤板考』,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下), 1104.

50)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187.

51) 卷3, 4

창 건: 肅宗 20(1694)年

배향자: 鄭溫(?~?) · 姜叔卿(1428~1481) · 河潤(1452~1500) ·
俞伯溫(1492~?) · 李濟臣(?~1583) · 李琰(1538~1588) ·
河天澍(1540~?) · 陳克敬(1546~1617) · 朴敏(1566~1630) ·
朴旨瑞(1754~1821)

肅宗 20(1694)년에 창건하여 巨儒들이 모여 학문을 강론하고 학도들을 가르쳤으며, 肅宗 46(1720)년 8월에⁵²⁾ 士林에서 고려 말의 문신인 隅谷 鄭溫, 조선 초기의 문신인 守軒 姜叔卿, 成宗·燕山君朝의 문신인 雲水堂 河潤, 조선 중기의 학자인 鼎山 俞伯溫, 조선 중기의 학자인 陶丘 李濟臣, 宣祖朝의 문신·학자인 雲塘 李琰, 新溪 河天澍, 栢谷 陳克敬 및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인 凌虛 朴敏의 9賢을 배향 봉사하면서 九賢祠로도 불리게 되었다.⁵³⁾ 高宗 5(1868)년에는 조선 말기의 학자인 訥庵 朴旨瑞를 追享하였으나,⁵⁴⁾ 그 해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이 서원에서 발행했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판본은 아래의 2종이다.

鼎山志 / 朴旨瑞(朝鮮) 編. -- 木板本(初刊). -- [晉州]: [鼎崗書院], [純祖 13(1813)年跋]

1冊: 四周雙邊 半郭 21.5 × 17.3 cm, 有界, 10行22字 注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序: 晉陽鄭宗魯撰

52) 朴敏 著; 朴旨瑞 編, 『凌虛先生文集』 4卷2冊, 木板本(重刊) ([晉州]: [鼎崗書院], [純祖 11(1811)年 頃]), 卷3, <年譜>, 張20左.

53) ‘진주강씨중앙중회,’ <<http://www.jinjukang.org>> [2008. 8. 26. 검색].

54) ① 朴旨瑞 著, 『訥菴先生文集』 8卷4冊,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隆熙 2(1908)年), 卷8, <事狀>, 張15右.

② 許捲洙, “訥庵 朴旨瑞의 學問과 江右學派에서의 역할,” 『南冥學研究』 第15集(2003. 7), 138.

跋: 崑崇禎紀元後丁卯[실은 三丁卯((1807)年]九月上浣後學蕙城朴旨瑞敬書
續跋: 崇禎三癸酉[실은 四癸酉(1813)年]晉陽河錫文謹書

附: 續集

鼎岡書院에서 奉祀하는 9賢에 대한 기록과 9賢의 저술, 서원에 관계된 기록을 모은 책으로 권말에 있는 河錫文(?~?)의 <續錄[錄]> 跋文에 의하면 朴旨瑞가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⁵⁵⁾

판본에는 간기나 발행사항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편자인 朴旨瑞의 문집인 「訥菴先生文集」에 이 책의 발행에 관한 약간의 기록이 있어서 발행사항을 추정할 수 있다. 「訥菴先生文集」에 수록된 저자가 지은 <鼎岡書院事蹟記>에 의하면, 鼎岡書院에는 전임자들이 이룩하지 못한 네 가지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첫 번째 祭器의 마련에 이어 두 번째 숙원사업이 서원에서 배향하고 있던 9선생의 遺集들과 事蹟을 印行하여 공적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었다. 이들 숙원사업은 純祖 9(1809)년 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凌虛先生文集」과 「鼎山志」의 판각은 純祖 11(1811)년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⁵⁶⁾ 이 기록에 의하여 「鼎山志」가 純祖 11(1811)년경에 鼎岡書院에서 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간기가 없음으로 인해 발행년은 각종 기록을 통해 고증해야 하는데, 이 책의 서·발문의 작성년도가 부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연도추정에 애로를 느끼게 한다. 이런 애로로 인해 각종 고서목록에서도 발문의 작성년도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⁵⁷⁾ 먼저, 권수에 있는 서문에는 작성년도가 표기되어 있지

55) '誌卽朴丈旨瑞氏之所蒐輯也' 朴旨瑞 編, 『鼎山誌 1冊, 木板本, ([晉州]: 鼎岡書院], 純祖 13(1813)年 跋), <鼎山志續錄[錄]>, 張14左.

56) '院有四件事 前輩所未違者 其一 院力之弱 祭器未成 而尙用陶 其二 先賢徽言懿德之所以表白於後者 以其有文獻之徵 而今者 九先生遺集與事蹟 方未印行 而公傳也...此四事俱是本院之不可已者...遂損財募工 次第經營 是已巳春二月 而明年祭器成 又明年凌虛集及鼎山誌登梓...' 朴旨瑞 著, 『訥菴先生文集』(1908), 卷4, <鼎岡書院事蹟記>, 張14-15.

57) 예를 들면, 朴旨瑞의 발문 작성년도를 고려대학교도서관에서는 仁祖 5(1627)년으로, 규장각의 고서해제에서는 英祖 23(1747)년으로 잘못 추정하였다. 그리고 河錫文의 續集 跋文 작성년도를 계명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의 고서해제에서는 英祖 29(1753)년으로 잘못 추정하였다. 다만, 규장각의 고서목록에서는 純祖 13

않다. 따라서 撰者인 立齋 鄭宗魯(1738~1816)의 생몰년만이 추정 근거가 된다. 鄭宗魯의 생몰년은 英祖 14(1738)~純祖 16(1816)년이다. 다음으로 本集 末에 있는 朴旨瑞의 발문 작성년도는 '崇禎紀元後丁卯'로 표기되어 있다. 표현대로라면 肅宗 13(1687)년이 된다. 그러나 朴旨瑞는 英祖 30(1754)년에 태어났으므로 肅宗 13(1687)년은 朴旨瑞가 태어나기도 전이라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撰者가 同名異人일 가능성도 없다. 朴旨瑞의 문집인 『訥菴先生文集』에 『鼎山志』에 수록된 발문과 동일한 글이 '題鼎山志後'라는 제목 아래 수록되어 있기⁵⁸⁾ 때문에 이 발문은 朴旨瑞가 작성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英祖 30(1754)~純祖 21(1821)년인 朴旨瑞의 생몰년을 감안한다면, '崇禎紀元後丁卯'는 純祖 7(1807)년인 '崇禎紀元後三丁卯'의 부정확한 표기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권말에 있는 河錫文이 지은 續集의 跋文 작성년도는 '崇禎三癸酉'로 표기되어 있다. 표현대로라면 英祖 29(1753)년이 된다. 河錫文의 생몰년도는 알려져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鄭德善(?~?) 등이 純祖 31(1831)년에 엮은 『忠烈實錄』⁵⁹⁾에 河錫文이 '崇禎二百四年辛卯', 즉 純祖 31(1831)년에 작성한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河錫文의 문필 활동년대를 대충이나마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純祖 31(1831)년과는 78년의 차이가 있는 英祖 29(1753)년이 跋文 작성년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1甲子 후인 純祖 13(1813)년이 『忠烈實錄』에 발문을 적은 해와는 18년 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옳을 것이다. 따라서 河錫文의 발문 작성년도로 표기된 '崇禎三癸酉'는 純祖 13(1813)년인 '崇禎四癸酉'의 誤記로 생각된다. 이렇게 추정된 두 발문의 작성년도, 즉 純祖 7(1807)년과 純祖 13(1813)년은 서문을 작성한 鄭宗魯의 생몰년인 英祖 14(1738)~純祖 16(1816)년과 앞서 거론한 <鼎岡書院事蹟記>에 기록된 『鼎山志』의 관각년도인 純祖 11(1811)년과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을 근거로 볼 때 『鼎山志』의 발행은 朴旨瑞에 의해 純祖

(1813)년으로 바르게 추정하였다.

58) 朴旨瑞 著, 『訥菴先生文集』(1908), 卷4, <跋>, 張21左-22左, <題鼎山志後>.

59) ① 경상대(古(오림)B9A-경223호, 古(아천)B9A-총234호: 영본1책(권2)), 古(계남)B9A-경223호: 영본1책(권1)

② 규장각(奎718, 奎5572, 古4650-113)

7(1807)년에 1차 편집되어 純祖 11(1811)년에 판각되었고, 본집만 수록된 판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純祖 13(1813)년경에 추가로 續錄이 편집, 補刻된 후 처음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원의 소재지는 太宗 2(1402)년에 晉陽大都護府에서 晉州牧으로 바뀐 후 계속 晉州로 불러 왔기 때문에 발행지는 晉州가 되겠다.

서명에 이용된 ‘鼎山’은 편자인 朴旨瑞가 발문의 첫 부분에서 “鼎山은 우리 9선생을 받들어 공경하는 곳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사실을 기록해둔다”⁶⁰⁾고 한 것으로 보아 鼎岡書院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⁶¹⁾ 따라서 이 책은 사실상 鼎岡書院志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서명을 「鼎岡書院誌」로 표현한 글도 있다.⁶²⁾

판본은 경상대학교(B15FB박79ㄷ(오림)), 계명대학교(고370.9박지서ㄷ), 고려대학교(B16-A54-1-만송, B16-A54-1-대학원), 국립중앙도서관(1247-111), 규장각(古4653-4) 등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凌虛先生文集 / 朴敏(朝鮮) 著 ; 朴旨瑞(朝鮮) 編. -- 木板本(重刊). -- [晉州] : [鼎岡書院], [純祖 11(1811)年頃]

4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2.0 × 18.4cm, 有界, 10行22字 注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凌虛集

手書刻序: 聖上二十一年丁巳(1797)仲夏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總府都總管錦城丁範祖謹序

跋: 上之十七(英祖 17, 1741)年孟春下弦曾孫[朴]泰茂書

60) ‘鼎山卽我九先生揭虔之所 而終始事實志備焉’

61) ‘山’과 산등성이를 뜻하는 ‘岡’은 서로 통하는 의미이며, 서원이 위치한 마을이 부근 地勢가 가마솥 같이 생겼다고 하여 솥 자를 따서 鼎洞마을로 이름 지어진 것과는 연관이 있을 것이다.

62) 許捲洙, “訥庵 朴旨瑞의 學問과 江右學派에서의 역할,” 150.

跋: 歲己未(1799)維夏上浣漢陽趙述道謹跋

朴敏의 詩文集으로 凌虛는 저자의 號다.

凌虛先生文集이 처음 편찬된 것은 仁祖 9(1631)년으로 저자의 문인, 제자들이 편찬, 필사한 遺集, 年譜, 行錄, 師友錄을 간수하다가 仁祖 18(1640)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 뒤 집에 보관된 책과 외손에게 가 있는 文件과 저자와 同代의 여러 賢士들 遺集과 古老의 傳言에서 拔萃 抄錄하고 遠近 士友들이 외는 詩文을 모아 필사본을 다시 만들었다.⁶³⁾ 이것을 저자의 曾孫인 朴泰茂(1677~1756)가 추가 편집하여 肅宗 17(1691)년에 목판본으로 初刊本을 발행하였다.⁶⁴⁾

여기에서 다루는 판본은 重刊本으로 권두에 있는 海左 丁範祖(1723~1801)의 서문 작성년도와 권말에 있는 晚谷 趙述道(1729~1803)의 발문 작성년도로 보아 正祖 23(1799)년경에 이미 편집이 끝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행은 앞서 「鼎山志」에서 밝혔듯이, 「訥菴先生文集」에 수록된 <鼎岡書院事蹟記>의 기록에 의해 純祖 11(1811)년경에 「鼎山志」와 함께 鼎岡書院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⁵⁾

발행지는 「鼎山志」에서 밝혔듯이 진주가 되겠다.

판본은 계명대학교(고811.081-박민ㄴ), 국립중앙도서관(古3648-25-143), 연세대학교(고서(I)811.98-박민-능, 고서(II)811.98-박민) 등 여러 곳에 완질 혹은 영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경상대학교에는 전자복사본(古D3B-박39ㄴ)이 소장되어 있다.

63) ‘嗚呼 先生易簣之二年辛未 門人弟子 編纂遺集 又敘述其年譜·行錄·師友錄諸篇 作爲數卷冊 而藏于家 粵十年庚辰 鬱攸之變 全帙歸於煨燼 其後家藏之隨得隨錄 零瑣湊合者十不能一二存 而直秦山之毫芒耳 孱孫之痛 豈有窮已哉 不肖竊懼夫 愈久愈失 而終至於泯泯無傳 謹取巾衍中如干所存與夫 並世諸賢集稿所載 及遠近士友間誦詠相傳 遂爲之輯錄如右’ (朴敏 著; 朴旨瑞 編, 『凌虛先生文集』(1811頃), 卷4, <跋>, 張25左.)

64) ① 朴敏 著; 朴源永 編, (國譯)凌虛先生文集: 泰安朴氏 一四世孫 朴敏 (부산: 가람, 2002), 1021.

② 한상규, “凌虛 朴敏의 南冥學精神과 性向,” (南冥學研究院) 南冥學研究論叢, 第11輯 (2002. 12), 339.

65) 주)56 참조.

5. 판본의 성격

전체 7종의 판본들 중 조선시대에 진주의 서원들에서 발행한 것이 확실한 판본은 「覺齋先生文集」(1844), 「鼎山志」 및 「凌虛先生文集」의 3종이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은 「覺齋河先生文集」, 「松亭先生文集」, 「覺齋先生文集」(1813序) 및 「浮查先生文集」의 4종이다.

먼저 판본들의 주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발행이 확실한 판본은 전체 3종 중 2종(覺齋先生文集(1844), 凌虛先生文集)이 集部의 別集類에 속하는 문집이고, 나머지 1종(鼎山志)은 史部의 地理類에 속하는 書院誌이다. 그리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은 4종 모두 集部의 別集類에 속하는 문집이다. 따라서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판본의 주제는 集部의 別集類가 6종, 史部의 地理類가 1종으로 각각 전체의 약 86%와 14%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진주의 서원들에서는 集部의 別集類인 문집을 주로 발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版種과 발행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7종의 판본은 모두 목판본이고, 17C에 1종, 18C에 2종 그리고 19C에 4종이 발행되어 근래로 오면서 점차 그 종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본과 배향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7종의 판본이 모두 그 판본을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원의 배향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鼎山志」를 제외한 6종의 문집은 모두 저자가 그 판본을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원의 배향자이고, 鼎山志 를 편찬한 朴旨瑞도 그 책을 발행한 서원에 高宗 5(1868)년에 追享된 배향자이다. 이처럼 서원들이 서원의 기본적인 두 가지 주요 기능인 강학과 제향의 기능 때문에 배향자와 관련이 있는 서적들을 많이 발행한다는 것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⁶⁶⁾

66)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267.

6. 결 론

지금까지 1910년 경술국치 당시의 경남 진주군에 所在했거나 所在한 적이 있었던 서원들에서 그때까지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을 살펴 보았다. 조사된 바로는 그 중 발행사실이 확실한 것은 3종으로 「覺齋先生文集」(1844), 「鼎山志」 및 「凌虛先生文集」이고,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은 4종으로 「覺齋河先生文集」, 「松亭先生文集」, 「覺齋先生文集」(1813序) 및 「浮查先生文集」이다. 이들 판본들에 대해서는 서지사항을 정밀기술하고 서원판본임을 밝히거나 발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판본의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밝혔다.

첫째, 조선시대 진주의 서원들에서는 集部의 別集類인 문집을 주로 발행했다.

둘째,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7종의 판본은 모두 목판본이고, 근래로 오면서 점차 발행 종수가 늘어났다.

셋째,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7종의 판본이 모두 그 책을 발행했거나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원의 배향자와 직접으로 관련 있는 것들인데, 그 중 6종은 배향자가 문집의 저자이며, 1종은 배향자가 書院誌의 편찬자이다.

앞으로 꾸준한 자료발굴을 통하여,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4종의 판본들에 대한 분명한 발행여부 확인과 새로운 서원판본들을 찾아내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문화유산정보.’ <http://www.cha.go.kr/korea/heritage/sub_heritage.jsp?mc=KS_01_00>.

‘제49회 진주 통계연보.’ <<http://stat.nongae.net/html/index.asp>>.

‘진주가이드.’ <http://www.jinju.go.kr/03jinju/05_01.php>.

-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minchu.or.kr/MAN/index.jsp>>.
- 『朝鮮の姓』複製本. 서울: 民俗苑, 1989.
- 朴敏 著; 朴源永 編. (國譯)凌虛先生文集: 泰安朴氏 一四世孫 朴敏. 부산: 가람, 2002.
- 朴敏 著; 朴旨瑞 編. 凌虛先生文集. 4卷2冊. 木板本(重刊). [晉州]: [鼎崗書院], [純祖 11(1811)年頃].
- 박병련 외. 南冥學派와 嶺南右道の 士林. 서울: 예문서원, 2004.
- 朴旨瑞 著. 訥菴先生文集. 8卷4冊.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隆熙 2(1908)年.
- 朴旨瑞 編. 鼎山誌. 1冊. 木板本. [晉州]: [鼎崗書院], 純祖 13(1813)年跋.
- 成汝信 著; 成東益 等編. 浮查先生文集. 8卷4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正祖 9(1785)].
- 안장헌 사진; 이상해 글. 書院. 서울: 열화당, 1998.
- 吳二煥. “南冥集」 釐正本의 成立.” (南冥學研究院)『南冥學研究論叢』 第3輯 (1995. 2), 395-478.
- 이상필. “진주 지역 문집의 현황과 그 의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慶南文化研究 第24號(2003), 1-16.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一潮閣, 1995.
-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탐구 25).
-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補遺·索引.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 崔錫起. “浮查集」 解題.” 『南冥學研究』 第10輯(2001. 2), 415-433.
- 河受一 著; 河正中 編. 松亭先生文集. 6卷3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正祖 12(1788)年].
- 河受一 著; 河宗根 編. 松亭先生文集. 5卷3冊, 續集3卷1冊, 共4冊. 石版本.

京城: [發行處不明], 1939.

河沆 著. 覺齋集 . 민족문화추진회 편,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第48輯.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8.

河沆 撰; 河以泰 等編. 覺齋先生文集 . 3卷1冊.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純祖 13(1813)年序.

河沆 撰; 河晉賢 編. 覺齋先生文集 . 2卷1冊. 石版本. 京城: [發行處不明], 1940.

河沆 撰; 河晉賢 編. 覺齋先生文集 . 3卷1冊. 木板本. [晉州]: [大覺書院], 純祖 13(1844)年.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 三 慶尙道 編③.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 二 慶尙道 編②.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 一 慶尙道 編①.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한상규. “凌虛 朴敏의 南冥學精神과 性向.” (南冥學研究院)「南冥學研究論叢」第11輯(2002. 12), 340-385.

許捲洙. “訥庵 朴旨瑞의 學問과 江右學派에서의 역할.” 南冥學研究」第15集(2003. 7), 133-157.